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34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4월 24일 (음력 3월 29일) 금요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

조선대 불복종 선언

"수업 거부·직원 파업 등 불사할 것"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조선대학교에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분위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빌딩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간 이사회 공백사태를 빚어온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임시이사 총원 9명 가운데 7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나머지 임시이사 2명은 5월7일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날 확정된 임시이사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해 곧바로 파견할 방침이며, 파견될 임시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정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대 학교정상화 및 전경영진 복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이사 재파견 불복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사분위 회의에 앞서 2시간여 동안 상경시위를 벌인 조선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가 비리로 퇴출된 옛 경영진 세력을 복귀시켜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분위는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파성향이거나 옛 경영진에 가까운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재파견한다는 것은 사분위와 교과부가 비리재단의 복귀를 돕는 것으로, 광주·전남 교육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분위 결정대로 임시이사가 재파견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임시이사들이 조선대에 들어올 수 없도록 투쟁하겠다"며 임시이사회의 그 어떤 결정도 조선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수업거부, 직원 파업 등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대 학교정상화 및 전경영진 복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조선대는 지난 1946년 7만 2천여명 지역민들이 성금을 모아 설립한 학교"라며 "정부는 조선대 설립과 운영의 실체적 진실, 지역민의 정성·여론을 도외시한 그릇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대는 최근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장실 점거와 교과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 전교수진 항의 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분위는 이날 조선대와 함께 상지대, 세종대 등 3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했으나 조선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대학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재파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88년 학내 민주화 운동을 거쳐 옛 경영진이 물러난 조선대는 지난 해 6월 말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사 부존재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져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책에 빠져든 아이들 23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영풍문고에서 열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희망을 위한 책 낭독회' 행사에서 연극배우 김은미(극단 청춘)씨가 들려주는 동화책 '강아지 똥'의 이야기를 금농어린이집 원생들이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쟁점 부각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발족…서명운동 돌입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국회의원 1인 독점 공천으로 변질되면서 각종 폐해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은 '정당책임 정치, 지방 토호세력 견제'라는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주장하면서도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분권운동본부, 광주·전남시군구청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시민행동 선언문을 통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부패와 망국의 악법이다"며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이자 추악한 정치부패의 온상인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민생과 주민복지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때문에 지역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에 돌고래 뛰노는 '바다 숲' 만든다

박람회 바다전시장에 축구장 13배 규모…'로봇 물고기'도 방류

2012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 돌고래와 로봇물고기가 뛰노는 축구장 13배 규모의 인공 바다 숲이 들어선다.

23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여수 신항과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 들어설 박람회 바다전시장(이하 Big-O) 전체 수역에 자연석과 암반을 바닥으로 하고 해조류와 산호류 등이 어우러진 '바다 숲'이 조성된다.

바다숲에서는 토종 돌고래의 자맥질을 구경할 수 있고 발광성 플랑크톤이 방류돼 시각 효과를 높인다. 특히 바다 오염물질을 먹는 '로봇 물고기'를 방류해 생태계 회복을 위한 미래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Big-O' 내 수중 건물로 세워질 오션타워에는 해조류와 소형어류, 산호류 등을 수심에 따라 배치해 다양한 해양생물 스펙트럼과 수질정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도 선사한다.

조직위 황규연 전시운영본부장은 "1923년 개항 이래 90년 가까이 무역항으로 이용되어 온 여수항 수질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오염된 바닥 두께만도 1m가 넘는다"면서 "'Big-O' 구역의 해양환경을 3년 내에 개선하고 해양생물의 보고(寶庫)를 만드는 것이 여수 세계박람회의 도전인 만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산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 전시시설인 'Big-O'는 면적이 축구장 넓이 13배에 달하는 9만㎡에 외곽 총 길이가 1㎞, 수심이 4.5m~9m에 이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월단체 농성 철거 법원 오늘 강제집행

법원이 24일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반대 농성중인 5월 단체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5월 단체들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수거 가처분 결정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5월 단체들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집행관들은 법원의 결정 내용을 알린 뒤 거부할 경우 조만간 농성장 퇴거 조치와 농성천막 철거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5·18 유족회, 5·18 부상자회는 이날 광주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성장 철거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할 방침이며, 강제집행 통보에 따른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7일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